

경축 92회 성탄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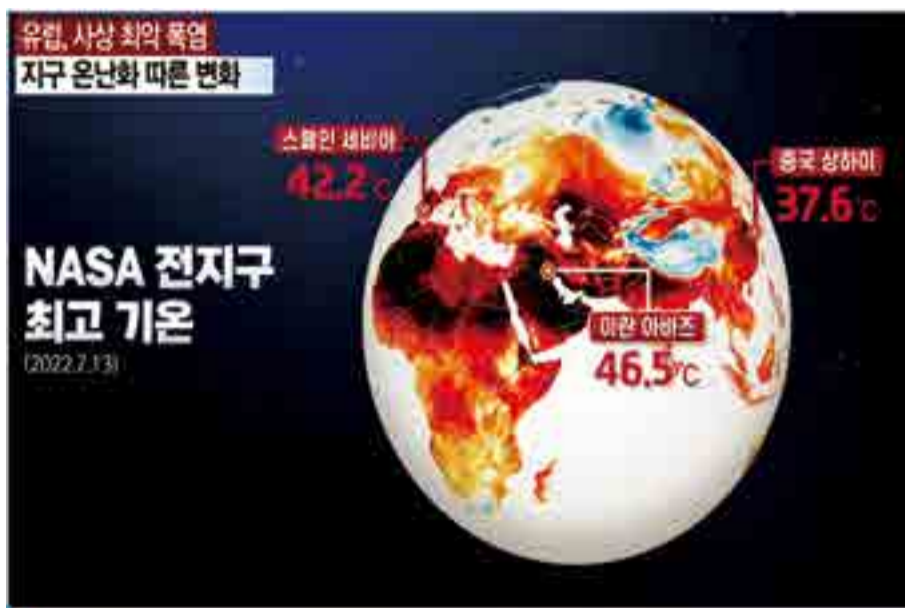
기후 관련 정도령 공약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8월은 메시아 정도령님이 탄강하신 달이다. 이달은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무궁화가 활짝 피고 해바라기도 활짝 피는 계절이다. 1931년 8월 12일에 메시아 주님께서 이 세상에 감람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6천 년 전에 예언하셨기에 영생주시는 메시아를 기리는 무궁화와 메시아를 영접하고 양망하는 인류를 상징하는 해바라기와 같은 꽃도 생겨났으리라.

의인 한 사람이 나오면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다

정도령님이 태어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날도 없게 되어, 결국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대로 1999년 7월에 인류가 멸망했는지 모른다. 사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같이 인류 멸망의 기한을 예고했지만, 여기에 예외적인 경우를 덧붙였는데 “이 지구 땅 위에서 의인 한 사람이 나오면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부언했다.

정도령 나이 오십에 성도(成道)하시어 이긴자로 나오심으로 인류가 멸망할 수



NASA 공개한 폭염 지도

없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긴자의 분신 능력으로 공산주의를 없앴으로 인하여 핵폭탄 전쟁을 못 일어나게 한 것이다.

정도령님께서 1980년 10월 15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이긴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듬해 8년 8월 18일에 이 세상에 나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영도님의 지시대로 소사 역곡에 『승리 제단의 헌관을 걸고 전도하시고 또 제단

단상에서 《5대 공약》을 선포하셨다. 정도령님의 《5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한국 땅으로 태풍을 못 불어오게 하겠다.
3. 한국에 여름 장마를 없애버리겠다.
4. 한국에 풍년들게 하겠다.
5. 한국에 전쟁이 못 일어나게 하겠다.

한반도에 남북전쟁이 못 일어나게 하겠

다는 공약을 고찰하면, 이 공약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세계정세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며, 더 나아가 한반도에서 남북전쟁을 못 일어나게 완전히 종식시키는 방법으로써의 남북통일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정도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천지공사의 기초지(基礎地)로 동방의 땅 곧 땅 모퉁이에 해당되는 한반도를 점지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승리제단을 해하려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감람나무를 해하고자 하는 자마다 죽임을 당하라.”는 예언대로 망하고 마는 것이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기후와 관련된 정도령의 3가지 공약을 주시한다

20세기 후반에 정도령님의 《5대 공약》이 선포된 지 어언 40년이 지나고 21세기를 맞이한 지구촌의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가뭄과 산불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 (하단에서 계속)

외국인들은 정도령의 진리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후변화로 재난을 겪고 있는 자신의 조국(祖國)을 구하라

스페인·포르투갈 등 유럽 남서부에서는 폭염으로 2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으며, 아르헨티나와 칠레 등 남아메리카에서는 갑작스러운 눈보라를 동반한 폭설로 2주간 국경이 폐쇄되었는데, 이같은 기후재난이 올해 7월에 발생하였다. 현재 2022년에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천재지변이 전 지구촌에서 팔죽 굶듯이 하니 지금 전 세계인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피부로 체감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다가 지구가 앞으로 30년밖에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정도령의 5대 공약 가운데 기후와 관련된 3가지 공약을 주시할 필요가 있었다. 태풍의 진로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능력이 있다면 소멸시키는 능력과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할 뿐만 아니라 비를 오게도 하고 못 오게도 하는 능력 그리고 풍년들게 하는 능력을 정도령이 갖추고 계시기에, 기후와 관련된 3가지 공약이 40년째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민족의 예언서 격양유록에는 정도령이 풍운조화를 임의로 구사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정도령께서는 “이 세상에 학문이 없었다. 종교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의 배경에는 정도령님께서 참 학문과 참 종교를 들고 나오셨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정도령님이 설하시는 새로운 학문에서, 어떻게 하여 태풍을 막고 어떻게 하여 비도 오게도 하고 못 오게도 하고 어떻게 하여 뜨거운 여름 하늘에 구름을 잔뜩 끼게 하여 서늘한 날씨로 변하게 하는지 그 방법을 외국인들이 배울 수 있다면, 한국에서 정도령의 진리 말씀을 접한 외국인들은 그들의 고국으로 각자 돌아가서 기후변화로 재난을 겪고 있는 조국(祖國)을 구원하여야 할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지구 땅 속의 불기운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이산화탄소 등은

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있다고 한다. 온실가스의 급상승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이 된다고 기후과학자들의 97% 이상이 동의한다. 그런데 지구온난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원인은 지구 땅속에서 불의 기운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극지방은 태양의 고도가 낮고 일조시간이 짧기 때문에 북극과 남극은 보통 때라도 영하 20도 전후로 몹시 춥다. 따라서 아무리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아 온도가 2도 내지 3도 정도도 올라가봤자 여전히 영하 18도이기에 얼음이 녹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남극에서 떨어져 나온 거대한 빙산이 바다로 동동 떠다니면서 녹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빙하를 떠받치고 있는 기반암에서 전달되는 뜨거운 열기를 상징해하면 설명이 가능하다. 쉽게 말하자면 땅속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가열된 빙하를 받치고 있는 밑바닥이 팽창되고 결국 남극의 거대한 얼음

이 갈라져 빙산이 되어 바다로 떠내려가는 것이다.

정도령님의 말씀에 의하면, 별 속에 하나님의 신이 갇혀 있고 지구 땅속에도 불덩어리가 되는 하나님의 신이 갇혀 있다고 한다. 그런데 땅 속에 있는 불덩어리가 바깥으로 나오면 세상 불이 되어서 타는 불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땅속에 불덩어리로서 하나님의 신이 지표면으로 나와도 타지 않는 불로서 원래 성품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들이 정도령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법을 배워 인류가 하나님으로 변하게 되면 만물도 음양의 성품을 벗고 중성체로 화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스파크 현상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기에 만물을 태우는 마귀 불이 사라지고 타지 않는 하나님의 불 속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백태선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37>
“자유율법을 전해야”

여러분들이 자유율법을 자신 속에서 완성시키면 그가 바로 메시아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다 메시아가 될 때에 메시아의 뜻이 완성되는 것이다.

또한 여러분들이 마귀를 죽이는 법, 사망을 이기는 법, 영생의 법이 되는 자유율법을 전해야 되는 것이다. 가짜 구세주가 외쳤던 이 세상의 율법은 잘못되

어 있다는 것을 일일이 지적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가짜 구세주는 자기만 구세주요 메시아라고 하였지만, 진짜 구세주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구세주가 되어야 한다고 외치며 세상 사람들을 다 구세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구세주와 가짜 구세주의 차이점이다.*

CESNUR참관기-안병천 영생학회장 발표논문

인류 최후의 종교혁명-영생학

논문 발표회장(캐나다 퀘벡)까지 가는 여정은 참으로 멀었다. 새로운 참진리 ‘영생학’을 온 세계 지성인들에게 전하려는 열망이 없었다면 정말 지루할 뻔했다. 팬데믹으로 3년만에 다시 열리는 발표회라 예년보다 참가자들은 적었지만 두 번째 발표자 세계영생학회 안병천 회장의 흥미로운 주제의 논문은 청중들의 주의를 끌었다. 다음은 안 회장 발표를 요약한 것이다.

해결의 절대정신의 성경적 해석

해결은 그의 역사철학에서 역사적 순간들의 사건을 기록한 인류의 역사란 영웅들의 개인적인 욕망과 의지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류의 궁극적인 목표인 자아실현을 통한 대통합으로 가기 위한 범우주적 국가정신(절대정신)이 역사를 이끌어 왔다고 했다. 단지 영웅들은 인류역사의 대미를 장식할 절대정신(paradise)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단계 단 동원된 것인데, 이것을 이상의 단계(the cunning of reason)라 했다.

인간의 삶에서 절대와 상대를 구분하는 가장 구체적인 기준은 육체적 생명의 수명기한(영생과 죽음)과 심리적 만족의 정도(극락과 불행)일 것이다. 말 그대로 절대정신을 소유한 절대자의 능력이나 의식 속에는 생명의 단절(삶과 죽음), 육체적 상태의 우여곡절(건강함과 고단함)이나 심리적 만족도의 변화(행복과 불행)가 없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마귀 불이 사라지고 타지 않는 하나님의 불 속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백태선 기자

진 전쟁의 정체가 밝혀졌다. 이를 통해 인류의 역사에서 물질적 풍요와 육체적 편리 그리고 정신적 진보를 가져온 과학이라는 인간의 학문은 비로소 신과학(神科學/Theo-science)이라는 인간의 의식을 초월한 신(神)의 영역의 학문으로 발전한다. 신과학의 입장에서 에덴동산에서부터 현재 그리고 에덴동산의 회복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Paradise I [절대선이 절대악 인식 이전의 분리존재]→Paradise lost [절대악이 절대선을 점령]→Paradise regain [절대선이 절대악을 점령]→Paradise II [절대선만 존재]로 구분될 수 있다. 성경에서 첫 번째 paradise였던 에덴동산의 주인공 아담을 생령이라고 하였고, 에덴동산을 회복할 둘째아담인 이긴자 구세주를 살리는 영이라 했다.

더불어 이긴자 구세주의 출현에서부터 paradise II를 완성하기까지 1,000년의 기간을 예정했다. 이긴자는 이 기간은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라 승리제단을 통한 이긴자 구세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학습자들의 학습성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다. 누구든지 21일 동안 이긴자 구세주의 가르침을 통해서 안으로는 ‘나라는 주체의식의 마귀영을 완전히 박멸소탕하는 진리의 말씀과 자유율법을 익히고, 밖으로는 불로초 불사약인 이슬성신이라는 살마광선을 받음으로 인간의 핏속에 기생하는 마귀영을 죽이는 줄락동시(齒喉同時)의 이치로써 모든 인간들은 이긴자 구세주로 거듭날 수 있다.

이슬성신만 먹고 사는 시대 곧 온다

시대를 거듭하면서 인간들의 섭생은 육식(肉食)→채식(菜食)→비건(Vegan)→Breatharian(공기와 햇빛만으로 생존 주장)에까지 이르렀다. 절대선(絕對善)만의 하나님 신으로 완전히 회복된 Paradise II [복낙원(復樂園)]의 섭생(攝生)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No Restaurant, No Restroom!”이다. 더 이상 능력을 회복하는 데 성공한다. 인류역사 6천 년 동안 인류와 모든 생명체에게 죽임과 죽음을 수명처럼 받아들이게 한 선악과(마귀영)의 정체가 바로 모든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나라는 주체의식’이었다.

이긴자 구세주의 출현을 통해서 인간과 우주의 생성원인이었던 하나님과 마귀신 사이에 에덴동산에서 벌어

영생이란 썩을 양식과 오염된 공기와 햇빛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발표내용이 참 좋았다.* 김영숙 승사 / 천안제단

